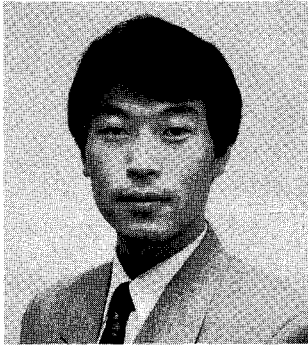


경쟁력 획득, 사육방식의 특성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강 양 주
강산사슴목장 대표

지난해 11월 중순 국내 선진사슴농장 견학을 다녀왔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원의 이룬 사슴농장이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농장이 그 명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더욱이 천편일률적으로 같고, 알팔파 따위 수입건초에 의존하는 사육방식은 실망이었다. 꽤나 오랜 양육경영 역사를 쌓아 나름대로 규모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농장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소규모 부업 구조의 대다수 사슴농장들의 사육환경이나 사육방식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니 씁쓸한 느낌이었다. 물론 두어군데의 농장은 나름대로 조사료의 다양화와 자급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 있었다. 그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으로는 우리 양육업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다 덮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 몇몇의 사슴사육방식이나 경영형태가 한국 양육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때문

이다. 다분히 개인적인 염려이긴 하지만 이대로의 한국 양육업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서리맞아 시들어갈 가련한 한줌 들꽃과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방정맞은 기우에 그 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런 기우를 쉽게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부재, 한약업계의 몰이해,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종 언론매체, 안이한 국내 양육인의 자세 따위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양육인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뉴질랜드 중국 등 양육 대국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국내시장 침투전략까지 겹쳐 우리 사육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문제점을 간과 하고서는 어떠한 희망적인 전망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모든 양육인의 실천하는 행동이 또다른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각성과 반성을 토대로 힘을 합해 나간다면 대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선 특성화 차별화를 통한 한국형 사슴 사육방식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그 기반 위에 힘 있는 조직을 세워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역량을 기른다면 안정적인 양육업 기반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흔히 광활한 초지방목 사육형태의 특성을 내세워 품질, 가격 우위를 무기로 국내 녹용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뉴질랜드에 「신토불이」론으로 맞서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신토불이」를 주장할만 한가?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배합사료와 중국산 갑오, 미국 또는 호주 땅에서 키운 알팔파를 먹여 사슴을 사육하면서 신토불이를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소비자들을 신토불이로 설득하려면 맑은 공기와 물 뿌렸한 사계절 등 천혜의 자연적 조건과 아울러 최소한 조사료만이라도 내 땅에서 자란 먹이를 급여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토불이가 신빙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먹이에 따른 녹용 녹육의 성분분석 또는 품질차별화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도 객관적인 입장만으로도 산야초와 약초 농후부산물 따위 우리 땅에서 나는 갖가지 조사료를 먹인 사슴과 몇가지의 초종에 의지하는 초지방목형 사슴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녹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과 약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이 어떻게 한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사육방식의 차별화 특성화가 뒤따라야만 그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사육방식의 차별화 특성화는 고유 브랜드화와 직결된다. 우리는 백화점과 대형식육점에서 브랜드화된 한우고기 돼지고기를 보관한다. 인삼한우, 약초한우, 보리한우 등등. 상표를 획득한 포장육은 일반육보다 값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특산품 부산물을 주사료로 먹여 키운 한우요 돼지고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정 궤도에 올라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사육방식의 특성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경쟁력의 한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슴의 사육방식 특성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밤, 감, 사과 등 사슴이 잘 먹는 과일류 부산물을 보조사료로 꾸준히 급여하는 방법. 산야초 및 약초를 급여하는 방법 등 농장이 위치한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반영한 사육방식이 곧 특성화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조사료자급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보조사료를 특성으로 주사료는 산야초와 손수 재배한 목초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겨울조사료의 수입의존 관행은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담근먹이와 건초 만들기를 생활화 한다면 겨울조사료의 수입의존도는 한층 낮출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도 모자라는 양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해보자. 그럴때 우리는 생산비 절감과 사육 특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지역적 사육방식의 특성화로 약용으로써의 고품질 녹용 녹육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국제경쟁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직적 역량을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조직의 힘은 막강하다. 우리는 양록협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표 단체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양록업은 이만큼 이라도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우리의 단체가 적극적인 정책건의와 함께 지도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기에 오늘의 한국양록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소모적이고 안이한 조직운영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힘을 모으고 그 모은 힘을 토대로 산재한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타개해 나가자면 단체와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모든 양록인이 협회원이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모든 양록인이 지혜와 의지를 총합해 보다 막강한 단체활동을 펼쳐 양록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러한 한국형 사슴 사육방식의 정착과 조직적 역량을 갖추었을때 한국양록업의 희망적 전망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